

# 2017년 UIA 세계건축대회의 서울 유치

Hosting UIA 2017 SEOUL

## 들어가는 말

2011년을 마무리 하면서 금년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 중의 하나였으며 국제위원회의 2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인 UIA 2017 SEOUL의 유치 과정을 정리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국제위원회의 이근창 자문위원, 심재호 자문위원(전 UIA이사), 신춘규 국제담당이사, 김성민 위원장의 생생한 기록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재구성해 본다.

## UIA에 대하여

### UIA의 위상 및 구성

**심재호** UIA(국제건축사연맹,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는 1948년 스위스 로잔에서 27개국이 모여 첫 번째 세계건축대회의 개최와 더불어 태동되었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24회의 총회를 3년마다 개최하여 왔다. 2017년이면 아시아에서는 베이징, 도쿄에 이어 세 번째로 당당히 서울에서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 총회를 열게 된 것이다.

UIA의 정관(Articles and Bylaws)에도 나와 있듯이 UIA의 설립취지는 국가, 인종, 그리고 종교에 대한 편견 없이 세계의 건축사들을 연합하여 각국의 건축단체의 연방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세계 124개국의 건축사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약 130만 명의 건축사로 구성되어 있어 언필칭 건축계의 UN이라 할 수 있다.

UIA는 전 세계를 5개 권역(Region)으로 구분하였다. 그중 한국이

속한 아시아, 오세아니아 주를 제 4지역으로 하여 19개국의 회원단체가 있고 그중에 18개국이 아카시아 회원국이다. 각 지역에서 4명씩의 이사를 선출하게 되어 전부 20명의 이사로 이사회(Council)가 구성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김수근 선생, 조재원 선생에 이어 조성중 박사가 이사직을 역임하였고, 필자는 2008년 이탈리아 토리노 총회에서 선출되어 금년 도쿄대회까지 이사직을 수행하였다. 본인에 이어 다시 한중률 이사가 이사직을 승계하게 되었으니 20년 이상을 연속적으로 한국이 아시아에서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셈이다.

### UIA 세계건축대회 유치의 의의

**심재호** 서울 유치 PT에서도 발표했듯이 한국은 이미 9년 간격으로 그동안 2차례를 총회유치를 시도하여 실패를 한 바 있다. 이번의 유치시도는 "The Third Time's Charm"(삼세번의 행운)을 기원한다는 김종성 유치위원장의 위트 있는 발표의 말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유치의 열망과 질실함을 반어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열망이 결실을 거두게 되고 이제 2017년 서울에서 UIA총회가 열리게 되면 우리 건축계의 위상이 한 단계 격상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건축문화와 역사를 심도 깊게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분열된 건축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에 충분하다. 더욱이 지난 2년간 건축 3단체가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유치의 쾌거를 이룩한 일을 보면 이제 건축계의 통합이 성큼 앞으로 다가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약 10여 일간의 세계건축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겠으나, 이를 위해 앞으로 6년간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건축계가 해야 할 노력과 이에 따른 부산물은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를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베이징, 도쿄와는 다르게 차별화되고 고유한 우리의 역사, 문화, 전통과 같이하는 건축문화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겠다. 이번 발표한 주제가 "Soul of City"가 아닌가? 지난 600여 년 동안 "도시의 혼"(Genesis Loc)을 지켜온 서울에서 세계건축축제가 열리게 된 것이다.

## UIA 세계건축대회 유치를 위한 시작

### 한국의 UIA 세계건축대회 유치 역사

**신춘규** 한국의 UIA 세계건축대회의 유치를 위한 노력은 3회에 걸쳐 이루어져왔으나 그 역사는 그렇게 내세울 것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한국은 1993년 시카고와 2002년 베를린에서 두 번에 걸쳐 9년마다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고 주로 한국건축가협회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시카고에서는 서울을 유치도시로 베를린에서는 부산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왔으나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던 간에 철저한 준비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즉흥적인 도전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세 번 다 아시아 도시와 경쟁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93년 시카고에서는 북경과 경합, 2002년 베를린에서는 도쿄와 경합 그리고 이번에는 싱가포르와 경합을 하게 됨으로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결국 베를린에서 우리 때문에 석패를 한 도쿄는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이번 서울유치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꺼려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아무튼 싱가포르가 2008년 UIA 토리노 세계건축대회에서 남아공의 덕분에 단 1표차로 석패한 후 이번에도 도전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서울유치를 위한 출사표를 던진 배경에는 부산시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2002년 UIA 베를린 세계건축대회에서 실패한 후 2008년 아카시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11년 도쿄대회에서 2017년 유치를 위해 다시 싱가포르와 경쟁하겠다고 2009년 몽고에서 개최된 아카시아대회에서 의사를 밝혔다. 이에 당시의 최영집 회장께서 두 가지 사안을 걱정했다. 하나는 또 다시 아시아 도시와 경쟁을 해야 하나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유치해야 한다면 부산이 적절하하는 것이었다. 꼭 한국이 UIA 세계건축대회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면 부산이외의 도시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한다는 생각이었다. 서울에 돌아온 회장께서 서울시 관계자와 만나 의사를 타진하던 중 서울의 강한 의지를 알게 되었고 부산

과의 타협으로 서울로 결정 추진하게 되었다.

### 유치위원회의 발족

**신춘규** 2017년 세계건축대회의 서울유치를 확정하고 유치위원회를 조직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열악한 건축계의 현실을 안고가야 하는 사정 때문에 재정의 많은 부분을 시에 의지하려는 건축계와 건축인의 행사로 건축계가 앞서야 하는 마당에 시에 너무 의지하고 있다는 서울시의 인식 차이는 시작부터 평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서울시는 건축계도 당연히 예산의 많은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건축계는 유치위원들이 그동안의 축적된 활동을 바탕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각 자 사무실의 운영에서 많은 부분 희생을 감수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비록 자문비 수준 정도를 요구 한 것이었지만)을 요구했으나 시의 강한 거절에 정말 봉사로서 남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FKA 회장이었던 최영집 회장과 서울시의 이건기 국장의 추진력은 2010년 10월4일 '건축의 날' 행사장인 국립박물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서울시와 FKA 간의 2017년 UIA 세계건축대회 서울유치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함으로써 금물살을 타게 되었다.

### 유치제안서 제출

**심재호** 유치제안서(Bid Proposal)를 제출한 것은 마감 하루 전인 작년 12월 16일이었다. 제안서 최종인쇄를 마치고 16일 특급우편으로 발송한 뒤 UIA본부가 있는 파리행 대한항공 편에 탑승하였다. 옆자리에는 지난 70여 일 동안 작성과정에서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조성중 UIA 전임이사가 동승하였다. 제안서를 제출하는 국가에서는 파리 UIA 본부에 옵서버를 파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제안서를 개봉하고 제출 요건과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UIA회장의 입회하에 사무총장이 확인하는 절차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싱가포르와 멕시코시티가 제출할 것은 쉽게 예견하였지만 캐나다 몬트리올이 제출한 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30여일간 내용검토를 거쳐 2011년 1월 베이루트 이사회에서 검토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국 몬트리올은 캐나다건축사협회 본회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규정에 위배되어 탈락하게 되었다. 3개 도시에서의 제안서를 비교 검토한 내용을 발표한데 이어 Jordi Farrando사무총장은 서울의 제안서의 내용이 타 도시와는 다르게 요건에 맞추어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은연중에 강조해 주었다. 필자는 Jordi 사무총장의 꼼꼼함을 알고 있었던 터라 제안서작성요건을 50여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작성토록 계획

했었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유치제안서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9월 말경부터이다. 마감일은 다가오고 있지만 시작도 못하고 유치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을 때였다. 필자는 당시 현역 UIA이사라는 이점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 제안서작성에 참여할 것을 지원하였고 서울시에 시일이 급박함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어 그나마 제출마감 60여일을 앞두고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덕(?)에 필자는 제안서작성을 위한 TF팀 팀장으로 선임되었다. 제안서 내용 중 행사테마는 이정만 위원, 이세영 위원이 담당하기로 하고 예산은 임재웅 위원, 행사는 국제행사 대행기획업체인 MECI가 합류하여 60여 일간의 준비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최종마감 제출을 며칠 앞두고 건축 3단체장과 임원들에게 제안서 내용에 대한 최종브리핑을 하였다. 예산의 규모, 등록비, 학생에 대한 배려내용, 행사시 UIA회원국에게 주어질 편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였다.

개발도상국 학생 300명에 대한 무상 등록비, 무상 숙박, 숙식에 대한 내용은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번 도쿄 PT에서 타 도시와 차별될 수 있었던 내용으로 최종투표에서 많은 득표를 하였다.

## UIA 2017 SEOUL을 위한 유치활동

### 유치활동과 유치위원회

**이근창** 유치준비위원회가 FKA 국제 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10여 차례 진행되고 큰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서울시와 주제를 정하고 수행합의서를 작성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를 분장하는 일 등에서 서로의 입장과 관습을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건축계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의회와의 예산편성은 각고 끝에 서울시가 3/4, 건축계가 1/4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참여한 의견 총들이 점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활동이 탄력을 받았다. 집행위원이 구성되었고 매주 조찬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접촉하고 참석해야 할 국제회의의 목록이 작성되고 담당자가 선정되고 예산을 배정하고 조직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되었다.

집행위원장은 건축계를 대표하여 오랫동안 UIA 활동에 참여한 조성중 박사와 서울시 이근기 주택국장의 쌍두마차로 하였다. 전반적 활동은 조 박사가, 예산의 지출은 이 국장이 하기로 한 것이다. 조직 위원장은 각 단체의 전임회장과 존경 받는 건축계 인사가 추천되었으나 각 단체로부터 자유스러운 김종성 박사를 추대하였다. 위원으로는 가협회 한종률 위원, 학회 이정만 위원, 사협회 이근창으로 하고 현 UIA이사인 심재호 위원, 그리고 서울시 권창주 과장, 진경식 팀장, 장병혁 주무관이 수고하기로 하였다.

UIA지역을 위원 별로 나누어 담당하기로 하고 본인은 4지역과 올 대회 개최지인 일본을 담당하게 되었다. 첫 업무는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ARCASIA의 회원국이기도 하고 결정이 단순한 도시국가이기에 출마를 포기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근기 국장과 당일치기 출장을 통해 싱가포르협회와 정부기관 담당을 만나 협상하였으나 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페어플레이하여 서로의 건축계를 세계에 알리는 축제로 하기로 합의하고 포기시키지 못한 채 귀국하였다. 그러나 이는 후발주자의 예의로 충분하였고 같은 지역 내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데 방문의 의미가 있었다. 특히 4지역에서 활동을 자유스럽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다양하게 개최되는 국제회의와 주요국가의 총회에 담당 위원들이 참석하여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특히 UIA 이사회와 교육위원회 AIA 총회, 멕시코 총회, 남미지역 총회, 아프리카연합회 총회, UIA 제1지역 및 제2지역 총회, ARCASIA 총회 등에서의 활동이 큰 결실을 맺는 주춧돌이 되었다. 더불어 국내에서 UIA 사무총장인 Jordi Farrando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협조를 구하였고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지원을 확인 받기도 하였다. 매번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준비한 동영상과 팸플릿, 선물 준비는 집행위원의 땀과 노고가 묻어나는 작업이었다.

2010년 12월 심재호 UIA이사가 담당하여 작성한 공식제안서가 UIA 본부에 제출되고 곧이어 사무총장이 직접 분석한 신청국의 비교표가 전달되면서부터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게 되었고 우리의 강점인 저렴한 등록비, 개발도상국 학생의 혜택, 정부의 적극적 지원, 문화 유산의 보전, 광활한 성장, 세계적 관심사인 지속가능한 개발, 아시아권의 또 다른 가치 등을 강조하여 전략을 펼치기로 하였다. 뉴스레터를 만들어 각 국의 회장과 영향력 있는 인사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게 되고 김종성 유치위원장의 간곡한 지원요청 편지가 회원국 협회에 보내졌다. 서울시는 지지서한을 작성하여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하게 된다. 각 회원국 대사관에서의 활동내용과 접촉 결과들이 속속 접수되면서 위원회는 실시간으로 그 강도를 조절할 수 있었다.



미국건축사협회 컨벤션에서 초청만찬 개최

## 각 지역에서의 유치활동

### 북미지역 유치활동

**신춘규** 우리 협회의 유치 활동은 그동안의 오랜 동안 지속되어온 국제활동에 맞는 아카시아 국가와 북미로의 초점을 갖게 된다. 금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된 미국건축사협회의 총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은 건축가협회의 유치위원들과 연합하여 미국 대표단을 포함한 각 국 대표에 대한 유치홍보를 펼쳤다. 이 행사에는 아카시아 회장과 중남미 건축단체장, 그리고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및 멕시코 등의 단체장이 대거 참석을 해 아주 중요한 홍보의 장이라고 생각했다. 가협회에서 매년 개최해온 '한국의 날' 행사를 유치홍보의 피크로 생각하고 준비했다. 각국의 단체장 및 건축계 인사들이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해간 자료를 갖고 체계적인 홍보를 한 결과는 만족스러울 만 했다.

### 중남미지역 유치활동

**김성민** UA 유치를 결정한 이후인 2010년 11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당시 FKA회장이었던 최영집 회장이 이상림 한국건축가협회장 및 스페인에서 수학한 김희곤 건축사와 함께 2010년 멕시코건축사대회와 제2차 기후변화오픈포럼에 참석하여 중남미와의 교류 및 유치활동의 물꼬를 여는 역할을 하였다. 미국건축사협회(AIA) 컨벤션 등에서 개인적인 친분을 쌓은 멕시코건축사협회(FCARM)의 리산드로 회장의 초청으로 11월 26일에 셀라야시티에서 열린 멕시코건축사대회에 참석하여 프레지덴셜 메달과 명예회원증을 수상하고 곧 이어 29일부터 멕시코의 휴양도시 칸쿤에서 열린 제2차 기후변화오픈포럼(II Open Forum COP-16, The 16th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건축단체장으로서 최초로 국제회의에서 특별 강연자로서 "탄소중립도시모델"을 주제로 강



아카시아 포럼에서 각국 대표단과 오찬

연하였다.

이를 계기로 멕시코를 중심으로 중남미와의 접촉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2011년 2월의 대한건축사협회 정기총회에 멕시코건축사협회 리산드로 전임회장이 참석하고 대한건축사협회와 멕시코건축사협회간 건축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멕시코시티와 UA유치를 놓고 경쟁하는 사이였지만 멕시코의 의중을 듣고 유치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3개 도시의 투표가 2차까지 갈 것을 예상하여 1차에서 멕시코시티가 탈락하게 되면 멕시코시티를 지지했던 중남미 국가들이 서울을 지지하도록 미리 요청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 아시아지역 유치활동

**신춘규** 오랫동안 아카시아회원국으로 활동해온 우리 협회로서는 표발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되어 더 초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싱가포르와 경쟁하는 관계에서 아카시아 회원국의 눈치는 우리를 긴장하게 했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몽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지지약속을 하고, 이어 서남아시아 회원국의 협조와 지지약속이 구체화되며 조금씩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 협회가 오랫동안 활발히 활동해온 아카시아포럼이 금년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의 다낭에서 개최되어 우리 사협회의 대표단 외에 여러 유치위원이 포럼기간 동안 참석하여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 대회에는 유치위원장인 김중성 교수가 참석하여 유치활동에 힘을 보탤다. '우정의 밤'에 미리 준비해간 유치위원회 티셔츠를 베트남학생들과 나누어 입고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강성익 회장의 하모니카 반주에 맞춰 합창을 한 것은 상당한 홍보효과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회기간 동안 강성익 회장이 베트남건축사협회의 회장 등을 만나 협상을 한 결과 베트남의 지지를 약속을 받았고 유치위원들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중국, 인도네시아, 몽고, 필리핀 및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대표단으로부터 서울 지지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약 75표 중 50표 이상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약간 서운했던 것은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온 일본이 베를린에서의 역사를 거론하며 적극적인 지지 약속을 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던 점이었다.

우리 사협회와 MOU를 체결하며 친분을 다져온 태국의 경우는 싱가포르와 꾀을 수 없는 Tri-Nations(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이라는 점을 들어 너무 곤란하지 않게 하는 편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한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 총회에도 강성익 회장께서 참석하여 아시아의 지지를 호소하였고 본인의 그림이 들어간 접시를 직접 제작하여 각국 단체장에게 선물로 주는 등 정성을 들여서 유치활동의 전면에서 활약하였다.

### 유럽지역 유치활동

**김성민** 우리나라와 비교적 교류가 많은 지역이 아시아, 북미, 서유럽이라면 가장 교류가 적은 지역은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일 것이다. 그 중에서 동유럽의 유치활동을 위하여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금년 6월 18일의 UIA 2지역(동유럽) 회장단회의(UIA Region2 Presidents Meeting)에 참석하기로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였다. 또한 전전날인 6월 16일에 같은 장소에서 흑해연안국 건축포럼(FABSR, Forum of Architects of the Black Sea Region)과 전날인 17일에는 발칸반도건축회의(Balkan Architecture Conference)가 열리므로 집약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유치위원회에서는 조성중 집행위원장과 필자가 참가하였고 직전에 개최된 아프리카건축사연합(AUA, Africa Union of Architects)의 총회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오는 유치위원들과 합류하였다.

6월 16일에 회의장소인 터키건축사협회 이스탄불지회를 방문하여 18일의 UIA 2지역 회장단회의 중간의 오찬을 서울유치위원회에서 후원하기로 하고 장소, 식단 등을 협의하였고 흑해연안의 9개 국가(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그루지아, 그리스, 루마니아,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회의에 잠시 참석하여 간단히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17일에는 아프리카건축사연합에 참석했던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을 위시로 6명이 합류하여 도합 8명의 유치위원이 존재감을 과시하며 발칸반도의 11개 국가(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마케도니아, 코소보,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터키)가 참여하는 발칸반도건축회의에서 서울을 홍보하였다.

18일에 열린 가장 중요한 회의인 UIA 2지역 회장단회의에서는 공정성을 위하여 3개 도시에 모두 초청장을 보냈고 오후 4시부터 각 도시에 20분씩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배정해 주었다.

서울유치위원회에서 후원한 오찬을 이스탄불건축사회관 1층 홀에서 김효수 본부장의 간단한 축하연설을 시작으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조성중 집행위원장의 서울 홍보 프레젠테이션은 동유럽인의 기호에 맞춘 자료를 준비하여 차분하게 진행하였고 서울시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어 서울의 역동성을 강조하였다.

싱가포르의 건축사협회장 1명과 관광청 공무원 1명이 참석하였고 멕시코시티는 건축사협회장 1명 이외에는 홍보회사에서 3인이 참석하여 모든 면에서 서울 유치단이 압도적인 분위기에서 홍보활동을 하여 서울시의 지원과 한국 건축사의 적극성을 무기로 동유럽 건축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

### 아프리카지역 유치활동

**심재호** 2011년 1월 베이루트이사회에서였다. 서울이 유치제안서를 제출하였다는 발표에 이어 참석한 여러 이사들이 관심을 표명하였다. 평소에 친분이 남달랐던 모로코의 Firdaous이사가 제안하였다. 본인이 부사무총장으로 있는 AUA(Africa Union of Architects)의 총회가 5월 앙골라 수도인 루안다에서 있을 예정이니 이 자리에서 서울이 PT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아프리카는 UIA제5지역으로 50표가 넘는 표밭이었기 때문에 필자는 이를 바로 수락했고 Firdaous이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메일로 나이저리아 출신인 Tokunbo 사무총장을 소개하여 주었다.

아프리카회원국 참석자들의 앙골라 비자발급이 순조롭지 못하여 총회장소의 확정이 늦어져서 Tokunbo 사무총장과는 수십 차례 메일을 교환한 후 루안다로 향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진심으로 아프리카회원국들에게 성의를 보이려고 한다는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다. Tokunbo 사무총장은 추후 AUA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지금도 그때의 일로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앙골라에는 이상림 회장, 김효수 주택본부장, 한만원 위원, 한종률 위원이 동참하였다. 특히 루안다주재 한국대사가 서울초청리셉션에서 호스트 역할을 해주어 서울의 입지가 많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의 유치제안서 내용에 대한 필자의 PT에 AUA회원국들의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한국의 사계절과 전통문화, 그리고 300명의 학생에 대한 무료지원 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중에 도쿄총회에서 아프리카지역 유치활동을 맡은 한영근 위원이 전한 말에 의하면 이때의 리셉션과 PT가 꽤 인상적이었다는 평을 받았다고 한다.

앙골라 루안다까지 편도 25시간이 넘는 먼 여정의 피로함과 귀국시 공항에서의 특별한 경험(출국 심사 시 금품요구, 불쾌한 소지품 검사 등)의 기억을 잊게 해주는 말이었다.



아프리카건축사연맹 총회에서 서울 리셉션 개최

## UIA 2011 Tokyo에서의 유치활동 및 유치도시 선정

### 도쿄에서의 유치활동

**신춘규** 유치활동의 정점은 마지막의 두 달 동안의 점검기간과 도쿄에서의 유치활동을 들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내외부로 무척 힘든 시기였다. 협회 이사회 내에서 일부 이사들의 국제위원회의 의결사안을 두고 논쟁이 심하게 있었고 서울시하고는 사협회의 입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에 이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치위원회는 집행위원과 홍보위원으로 나누어진 다. 그리고 집행위원은 조성중 위원장과 이건기 국장이 공동으로 맡고 각 단체별 한명씩, 사협회 이근창 고문, 가협회 한종률 이사, 학회 이정만 교수로만 결정했다. 이는 한동안 준비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지켜본 결과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 이건기 국장이 낸 아이디어였다. 홍보위원회는 처음에는 준비 상 필요한 위원들만 추리고 도쿄에서의 유치활동에서는 더 보완하기로 했다. 따라서 사협회에서는 심재호 UIA 이사와 협회이사인 필자와 김성민 위원장, 여성위원으로 이재림위원이 들어가고 가협회에서는 임재용 위원과 한만원 위원, 박재유 위원이 학회에서는 정재욱 교수, 심재현 교수와 이세영 교수가 합류하게 되었다. 나중에 도쿄유치활동을 위해 이옥화 위원, 정재희 교수, 한영근 위원 등이 합류하게 되었다.

유치활동을 전문적으로 이끌어가는 전문업체로 홍보 및 진행은 MECI가 동영상물 제작 등은 대흥기획이 선정되었다. 동영상 제작은 심재호 이사가 자발적으로 담당하고 도쿄에서의 한국의 밤, 전시장소, 본부 등의 장소 물색을 위한 일본 조직위원회와의 협의는 이근창 위원이 맡기로 했다. 홍보를 위한 한국전시관은 임재용 위원이 맡았다.

유치 활동을 통한 각 단체의 합심한 모습을 기대하던 바람이 많은 부분 퇴색이 되기도 했지만, 마지막으로 돌입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지고 단합된 힘으로 전쟁과 같은 일정을 보냈다. 특히 집행위원들은 일주일 두 번 이상의 긴 회의와 점검하는 일정에 지쳐가는 모습이 역력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투표결과에 대한 예상을 해보았을 때 약간 낙관적이기는 했지만 결과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라 마음이 뒤틀렸다. 유치가 실패할 경우의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결과를 뇌리에 떠올릴 때면 내가 왜 서울유치를 주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특히 마지막 도쿄 현장에서 열흘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몽롱한 느낌이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필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교류해오던 건축사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다른 위원들보다 2일이나 먼저 출국을 하게 되었다. 건축사축구대회는 일본 조직위원회의 핵심인사인 가즈오 이와무라 교수가 중심이 되어 준비를 하는 행사이고 일본건축가협회 타로 아시하라 회장과 후루야 노부야키 교수 등 굵직한 인물들이 참석하고 중국과 태국의 대표단들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라 유치활동의 시작점이라 생각했다. 준비해간 우리 서울로고가 들어간 셔츠와 배지는 상당한 인기품목으로 각광을 받았다.

도쿄에서의 유치활동은 사협회의 대표로서 각 행사에 참석(UIA 건축실무위원회, 아카시아 실무위원회), 유치위원으로서의 각 국의 대표단을 만날 수 있는 유치활동으로 나누어져 벌였다. 각 위원들은 담당 국가가 정해져 있고 또한 그동안의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각 국 대표단을 만나 지지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이제 체면은 뒷전에 두고 노골적인 부탁을 하고 구체적인 확인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이런 적극적인 유치활동은 역시 한국 사람들은 한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적극성이 있음을 재확인 시켜주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독일의 여성대표처럼 너무 한국이 들이대는 것 같다.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었다.

필자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을 맡은 중국, 몽골,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의 5개국 대표 이외에도 미국과 아카시아 각 국의 대표단을 만나는 데로 지지부탁을 하고 다녔다. 김성민 위원장과 동유럽의 전사와 세미나를 참석하여 지지요청을 했다.

이런 유치활동 중에도 진행이 된 최종 PT 준비는 백미였던 것 같다. 하루에도 아침저녁으로 수시로 모여 PT 연습과 그룹 댄스를 준비하는 과정은 힘이 들면서도 많이 기억에 남는다. 리허설의 총연출자 격인 이건기 국장과 이정만 집행위원의 적극적인 진행, 아무런 불평도 없이 매번 리허설에 참여하는 김종성 위원장과 PT를 오래 전부터 기획사와 준비해온 심재호 이사, 마지막에 나타난 젊은 건축가를 상징하는 박정윤 씨, 전문 아나운서 안정현 씨의 놀라운 전문성과 노력이 축적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이런 준비과정을 통해 얻어진 단결력은 10월 1일 유치투표 당일에 빛을 발했다고 본다. 먼저 발표를 시작한 싱가포르건축사협회 애쉬빈 회장의 멋진 프레젠테이션과 멕시코의 영성한 프레젠테이션에 대응한 우리는 서로 나누어진 역할분담을 통해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성과 속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본다. 마지막 그룹으로 무대에 올라가 노래와 약간의 댄스(?)를 하기 위해 무대 아래에서 PT를 보는 동안 가슴이 자주 몽클해지고 코가 찡해지는 것은 내가 한국인



서울 홍보관에서 유치위원들과 함께

임을 스스로 표현해주는 것이 아닌 가하는 자부심이 들었다.

유치 성공에 대한 확신은 전날 서울의 밤의 행사 후에 들기 시작했다. 임페리얼 호텔에서 개최된 서울의 밤은 장소와 식사메뉴 만으로 초청된 각 국 대표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전날 싱가포르의 만찬에서의 우려가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행사도 중 Louis Cox UIA 회장이 무대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지는 해프닝이 있긴 했지만 초대받은 대표들은 계속 아쉬워하며 자리를 지켰고 노래와 춤의 향연은 계속 이어졌다. 행사가 끝나고 나가는 대표들을 다른 위원들과 문가에 서서 배웅하며 맞이하게된 그들이 남기는 말들은 “이런 파티는 생애 처음이다”, “난 서울의 지지를 약속한다”, “이미 서울이 이긴 것으로 안다” 등 확신에 찬 답들이 많이 나와 가슴이 뿌듯했다.

### ‘서울의 밤’ 행사

**이근창** 투표 날짜가 가까이 오면서 투표가 있을 행사장에서의 활동 지침이 구체적으로 만들어 졌고 투표 전에 있을 초청 만찬 준비를 위해 국제행사전문업체인 MECI 직원과 2일 간의 출장을 가게 되었다. 만찬 장소는 일본 조직위원회(JOB)를 통해 추천 받아 4개 장소를 답사하였고 최종적으로 UIA 임원이 숙소로 사용할 임페리얼 호텔 2층 West Peacock Room으로 정하였다. 식사 메뉴, 행사진행, 실내장식, 공연자 선정, 선물, 자리배치, 여흥 등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정리했다. 공연은 퓨전 음악을 연주하는 헤이아 팀으로, 막걸리는 위원들이 직접 운반하기로, 선물은 남자는 특별 제작하여 흥보로고를 넣은 목도리를, 여자는 긴 실크 머플러로, 얼음조각은 서울의 상징인 해치로, 배치는 황으로, 하나씩 정리되면서 감동 있는 서울의 밤을 맞게 되었다.

만찬 일정 역시 투표 하루 전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JOB와 제국호텔의 한국인 매니저, MECI,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참석, 새로이 UIA 회장으로 선출된 Albert Dubler의 인사말, 전임 회장 Gaitan Siew의 축사, 직전회장 Louis Cox의 인사말, 전임 ARCASIA회장인 필리핀의 Yolanda Rayes의 건배사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기에 충분했다. ARCASIA 행사를 통해 검증된 태국대표단의 Nui와 일본 iwamura의 즉석 가라오케는 모두에게 기쁨과 화합을 다짐하기에 입권이었다.

현지에서의 유치 활동은 기 접촉했던 투표권이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확인, 재확인하는 절차였다.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몽고 이외 모든 4지역 내 회장과의 만남은 결과에서 보듯이 서울의 손을 들어주었다.

### ‘최종 프레젠테이션’ 발표

**심재호** UIA총회에서의 꽃은 무엇보다 유치도시 선정 프레젠테이



유치도시 투표 전날의 '서울의 밤' 행사

션이다.

PT는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엄한 규정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그동안 2년여 기간 동안 준비한 내용을 짧은 시간(나중에는 무척 긴 시간이라고 알게 되었다) 내에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로 여겨 질 수밖에 없었다. 유치제안서 작성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PT 내용을 기획, 촬영, 제작을 위한 총감독(커미셔너)으로 선임이 되었다.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보니 필자의 특유한 도전정신이 발휘되어 이를 수락하게는 되었으나, 만약에 유치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감당해야 할 어려운 시간들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2005년 이스탄불총회와 2008년 토리노총회에 모두 참석하여 이 유치 PT를 관심 있게 지켜본 경험이 있었고 이때 촬영하여 두었던 동영상도 이번 PT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더반이 2008년 발표한 내용을 보니 감성적인 접근법을 썼던 반면에 싱가포르의 그리니티라는 비교적 딱딱한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서울은 도쿄나 싱가포르와는 다르게 unique하다는 면을 강조하고 UIA회원국의 감성에 호소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게 되었다.

당초 PT기획을 위한 용역회사가 제일기획으로 선정되었으나, 2주 정도 진행한 후에 포기하는 바람에 대홍기획으로 교체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제일기획은 당시 평창올림픽유치발표를 앞두고 있어 힘들었다고는 하였지만 예산대비 여러 면에서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였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일을 흔쾌히 수락한 대홍기획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전문 광고기획회사와 처음 하는 일이라서 다소 생소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평소에 접해 볼 수 없던 분야의 팀원들의 강한 프로정신에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다.

60여 일간의 제작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보고, 자문, 자체회의를 가졌다. 서울시, 집행위원회, 외부자문위원들 모두 UIA총회유치라는 부담을 갖고 있었던 터라 이러한 회의가 모두 원만하고 부드럽게 진행될 수는 없었지만, 유치를 위한 목적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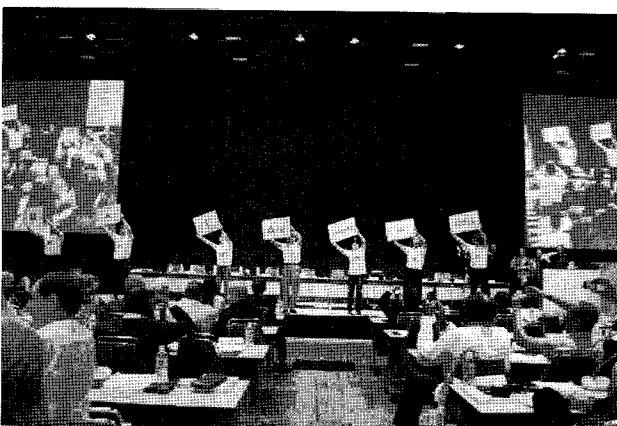
를 이해하게 되었고, 특히 총감독에게 힘을 실어준 서울시 주택본부 이경기 국장이 큰 도움이 되어주었다.

**김성민** 3개 도시의 최종 PT는 그 형식부터가 확연히 차이가 났다. 싱가포르의 싱가포르건축사협회의 애쉬빈 회장이 무대를 누비면서 원맨쇼 같은 세련된 PT를 했으나 그러기에는 20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멕시코시티 역시 멕시코건축사협회장의 간단한 발표에 이어서 15분가량을 관광홍보 동영상으로 채워서 건축적인 내용이 너무 부족해 보였다. 이에 반해서 서울의 PT는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고 2개의 동영상으로 이뤄진 다소 진부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짜임새 있는 구성을 보여 주었다고 자부한다. 아리랑TV의 안정현 아나운서의 부드러운 진행에 따라 이상림 FKA 회장이 한국 건축계의 열망을 얘기하고, 서울시의 이경기 주택국장이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는 서울을 소개하는 오프닝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김종성 위원장이 'Soul of City'라는 주제에 대하여 건축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한 후 우리의 히든카드였던 박정운 씨가 유창한 불어로 'Young Dream'에 대해 설명을 해서 영어권에 대해 약간 소외감이 있는 불어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곧 이어 안정현 아나운서가 대회 진행과 우리 제안의 장점, 서울의 매력에 대해 유머 있게 설명하였고 메인 동영상으로 서울의 전통을 표현하는 가야금 연주자와 서울의 첨단을 상징하는 일렉트릭 기타 연주자를 대비 시키면서 서울의 다양성과 건축을 다이나믹하게 보여주었다. PT의 대미는 미리 작곡한 간단한 선율의 'U & I Are Friends in Seoul' 노래에 따라 유치위원들이 피켓을 들고 무대 위에서 울동을 선보이는 독특한 이벤트로 마무리하였다.

이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1년 넘게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 고생한 심재호 위원과 서울에서부터 도쿄까지 연일 계속되는 리허설에 열심히 따라준 유치위원들의 열의가 느껴진 20분이었다.

### 한국 건축사의 UIA 2011 TOKYO 대규모 참가

**김성민** UIA 서울 유치를 결정하고 바로 참석한 일본건축가협회



서울 PT의 대미를 장식한 유치위원들의 퍼포먼스

(JIA, Japan Institute of Architects)의 전국대회(2010년 10월 7일~9일, 기타큐슈)에서 일본건축가협회 아시아라 회장 및 임원과 FKA 회장 및 임원 간의 회의에서 서울의 UIA 유치 도전을 설명하고 유치 여부가 결정되는 2011년 UIA 세계건축대회에서 일본 건축계의 서울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건축가협회는 UIA 세계대회에 많은 한국 건축사의 참여를 요청하였고 일본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당시로서는 도쿄에서 열리는 UIA 세계건축대회에 가급적 많은 한국 건축사를 참여시키기로 약속하고 노력하게 되었다.

꼭 이러한 목적 이외에도 가장 큰 규모의 국제적인 건축 행사가 이웃 나라에서 열리므로 우리 건축사가 쉽게 참여하여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장래 UIA 세계대회를 유치할 국가에서 미리 이런 행사를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우리 협회 뿐만 아니라 FKA의 3단체가 모두 참관단을 조직하게 되었다.

UIA 도쿄 세계건축대회 기간이 학기 중이어서 대한건축학회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한국건축가협회의 참가자도 미리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봤을 때 결국은 대한건축사협회의 참여인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초기부터 강성의 회장께서 협회 차원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많은 회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결과적으로 110명이 넘는 우리 회원이 참여하여 유치활동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또한 회원들에게 UIA 행사와 연관된 유익하고 차별화된 일정을 만들기 위하여 UIA 2011 TOKYO 조직위원회(JOB, Japan Organizing Board)의 오구라 위원장 및 UIA 세계대회 기간 중의 투어 프로그램을 관장한 JOB 부위원장이며 UIA 4지역 부회장인 이와무라 교수의 협조를 구하고 UIA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사 및 일본 측 여행사를 접촉하여 미리 한국 건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일정은 UIA 세계대회의 일반 참가자 일정인 전반기 3박4일과 UIA 총회의 UIA임원 일정인 후반 3박4일로 나눠서 기호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아쉬운 점은 전반기 일정에서는 UIA 세계대회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행사 및 강연이 일본어 및 영어 위주로 진행되어 대다수 회원들이 쉽게 참여하기 어려웠으며 후반기 일정은 일반인 참석이 제한되어 최종일의 UIA 유치도시 투표 이외에는 UIA 세계대회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2011년 UIA 세계건축대회 유치도시 선정

**신춘규** 10월 1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며 이상할 정도의 신선한 공기를 느꼈던 것도 이런 희열의 밤을 마음에 담아두었기 때문 아니었나 싶다. 행사장에 간 나는 이경기 국장과 몇 사람에게 "느낌이 좋고 1차 투표에서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행사장에 들어서면서 미국 대표인 전회장이 "미국은 100% 서울을 지지한다"라는 말을 하고 그동안의 약속을 한 대표들이 계속 확인을 해준다. 그동안





유치도시 확정직후 환호하며 기념촬영

걱정을 했던 일본도 서울을 지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준다.

드디어 1차 투표, 전자투표로 진행된 결과를 발표하는 Gaetan Siew 전회장의 발표, 85:123:44! 1차 결정에 4표 부족한 득표, 혁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기뻐할 새도 없어 떠오른다. 기뻐서 펄쩍 펄쩍 뛰는 우리 대표단들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확 사라진다. 동시에 옆에 앉아있는 싱가포르 대표단들의 기죽은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얼마나 미안했던지 기뻐할 수가 없었다.

2차 투표는 결과가 뻔한 것이었다. 106:146. 그래도 멕시코시티의 44표 중 반이 싱가포르로 갔다.

### 성공적인 UIA 2017 SEOUL을 위하여

**신춘규** \_ 이제 6년이 남았다. 발표 직후 일본 대표들이 한결같이 충고를 준다. 쉬지 말라고... 이제부터 준비를 시작해야한다고 한다. 차분하게 매년 할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왜, UIA 세계건축대회를 서울에 유치하려고 했는가를 되새겨 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세계건축대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이 목표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전진해야 한다.

세계건축대회의 유치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서울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와 건축계가 스스로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건축계의 올림픽이라는 명제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이는 세계건축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어낼 것이 많다고 본다. 내부로는 일반인들에게 건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으며 정책수립자나 위정자들에게 건축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외부로는 국내건축사들의 국제경쟁력을 함양하고 지금의 국내건축사들이 국제경쟁력이 있음을 재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지난 10월 1일 '2017 UIA 세계건축대회 서울 유치' 확정 후 공랑에서의 대표단 환영식

6년 동안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건축계와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굴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김성민** \_ 금년에 도쿄에서 개최된 UIA 세계건축대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물론 년 초의 대지진과 쓰나미의 여파가 컸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도쿄시의 지원 없이 추진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컸고, JIA가 주도하면서 타 단체 및 학계 등의 협조가 적어서 프로그램이 부실해졌으며, 일본 건축사, 학생의 참여가 저조하여 많은 행사장이 빈자리로 남겨지게 되었다.

2017년 세계건축대회를 준비하면서 건축단체 사이의 협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서울시와도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국내의 일반인과 해외의 건축사에게 우리 건축사와 작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유래 없는 건축계의 불황과 건설시장의 축소로 많은 건축사가 고통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설계비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사가 존경 받는 사회가 되기 전에는 단순히 제도적 장치나 구호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7년의 UIA세계건축대회가 그 물꼬를 여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이근창**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전 아카시아 회장,

(주)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부회장

**심재호**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전 UIA이사,

제이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주) 대표이사

**신춘규** 국제위원회 담당이사,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성민** 국제위원회 위원장, (주)한섬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